

일본 · 중국 · 인니 '인형극' 온다

국립무형유산원서 내달 5~6일

아시아의 인형들이 인간의 삶과 역사를 말한다. 국립무형유산원은 10월 5~6일 열쑤마투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에 있는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의 전통 인형극을 공연한다.

인형극은 인형으로 인간의 희로애락, 문화, 역사 종교 등 주변 이야기와 삶을 담아낸다. 수백년 간 다른 공간에서 고유 문화와 향기를 담아 전해져온 아시아 3국 인형 이야기는 다양한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독특함과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일본 인형극 '닌교 조루리 분라쿠'는 10월5일 오후 7시 공연한다. 분라쿠는 노(能), 가부키(歌舞伎)와 더불어 일본 3대 전통 예능으로 운함을 다해 연기하는 해설자 '다유'의 대사, 강렬함과 섬세함을 겸비한 악기 '사미센'의 선율, 3명이 조종하는 인형의 움직임과 표정 연기가 압권이다.

'닌교'는 인형, '조루리'는 이야기체 전통음악을 뜻한다. 오늘날 전승되는 '닌교 조루리'는 에도시대 초기인 17세기에 생겨나 전해 내려오고 있다.

중국 인형극 '푸젠성 인형극'은 10월6일 오후 2시와 4시, 2차례 무대에 오른다. 10세기부터 푸젠(福建)성, 타이완 등 중국 남동부 민난에서 널리 발전한 중국의 대표 공연예술이다. 독특한 인형 조종술과 인형 공예, 극(劇)과 음악의 향연으로 각국의 인형극 축제에서 환호를 받고 있다.

푸젠성 인형극은 줄인형극과 손인형극으로 나뉜다. 이번 무대에서는 줄인형극 중심지인 취안저우(泉州)시에서 활동하는 줄인형극단(提线木偶)이 자신들의 대표 공연 5개 중 가장 인기 있는 부분을 공연할 예정이다. 공연 예술감독은 푸젠성 줄인형극 전승의 산증인인 취안저우시 목우극단 명예단장 왕징셴이 맡았다. 이 종목의 일급 전승자들이 동행했다.

인도네시아 인형극 '와양'은 10월6일 오후 7시에 선보인다. 재바섬에서 유래한 이야기 구술 양식의 전통 인형극이다. 목제인형 '와양 고렙', '클리틱'과 가죽 그림자 인형 '와양 콜리트' 등 정교하고 화려한 인형과 인도네시아 영혼이라고 불리는 청동 악기 '가들란'의 독특한 음색으로 표현되는 복잡한 음악이 어우러진 전통문화다. '와양'은 원래 인도네시아 자바어로 '그림자'를 뜻하는 말이었지만, 현대에는 '인형', 혹은 '인형극'을 뜻한다.

이번에 초청된 인도네시아 공연팀은 시바, 브라흐마, 비슈누 등 힌두교 3대 신 중 비슈누의 화신인 라마가 악마 라바에게 납치된 아내 시타를 구출하려 떠나는 인도 대서사시 '라마야나' 설화를 바탕으로 공연한다.

초청공연, 국제컨퍼런스, 체험 워크숍 모두 국립무형유산원 웹사이트에서 행사 시작 전날까지 예약을 받는다.



일본 인형극 '닌교 조루리 분라쿠'



중국 푸젠성 줄인형극



인도네시아 인형극 '와양'

우수작 초청공연 뮤지컬 '홍도'

내달 2일 오후 7시 정음사예술회관서

뮤지컬 '홍도'가 10월 2일 오후 7시 정음사예술회관에서 공연된다.

제3회 혼불문학상 수상작 소설 '홍도'를 원작으로 하여, 역모혐의로 불운하게 생을 마감한 조선시대 중기 사상가 정여립의 생질(生寢) 손녀인 '홍도'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뮤지컬이다.

뮤지컬 '홍도'는 '홍도'와 '자치기'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를 주제로 그려낸 작품이다. 대표 인물별로 웃음과 슬픔, 감동이 있는 테마곡을 만들고 브리지 음악(절과 후렴, 후렴과 후렴을 연결하는 음악)을 통해 지속적인 반복으로 관객의 뇌리에 남을 수 있도록 음악을 구성했다. 또한 영상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거와 현대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준다.

전주국제영화제 수상자로 전주를 방문한 영화감독 동현은 정여립과 관련된 역사의 현장을 돌아본 중 미스터리한 여인 홍도를 만나게 된다. 그녀는 400여 년 동안 살아왔고 기축옥사로 죽은 리진길의 딸이자 정여립의 손녀라고 말한다. 결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동현은 그녀에게 빠져든다. 대동 세상을 꿈꾸던 정여립과 민초들의 투쟁과 죽음, 첫사랑 자치기와 의 만남과 이별 등 그녀의 굴곡진 삶의 여정을 모두 듣고 난 동현은 비로소 그녀의 이야기를 믿게 되며 자신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다.



시 관계자는 "400여년을 뛰어넘어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로 관객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공연을 통해 가족을 비롯한 주의 사람들의 소중한 희생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 관람료는 2층 5,000원 3층 3,000원(장애인·국가유공자 50% 할인)으로 티켓링크(☎1588-7890)를 통해 10월 1일까지 예매할 수 있다. /정은=김대환 기자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 연기... 북측 발굴인력 부족 탓

개성 만월대 제8차 공동 발굴이 연기됐다.

문화재청은 25일 북측 민족화해협의회가 북측 발굴 인력 준비 부족 등 행정적 이유로 애초 27일 착수 예정이던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 재개를 연기해줄 것을 남북역사학자협의회에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북측 발굴인력 미확보로 지연한 것인만큼 다른 남북교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리라는 것이 문화재청의 판단이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만월대 공동발굴 재개가 가능한 날짜를 협의하기 위해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6일 문화재청, 통일부와 함께 개성에서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 재개를 위해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와 실무협의를 했다.

당시 남북 관계자들은 27일부터 12월27일까지 3개월간 만월대 공동 발굴 조사와 유적 보



존사업을 하고, 10월2일 남북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착수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우선 제8차 공동발굴 지역을 훼손이 심한 만월대 중심 건축군 서편 축대 부분으로 합의했다. 발굴 후에는 남북 전문가들이 보존·정비 방안을 논의해 축대 부분 정비까지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뉴시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